

<동정자료>

## 김현미 장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민간기업·시민 주도 조성” 강조 민간업체 간담회… ‘백지상태 부지+과감한 규제 혁파’ 생태계 조성 약속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목),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1. 29.)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 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민간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 김 장관의 부산 에코델타시티 방문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 이후 첫 번째 현장 방문이다.
  - 김 장관은 먼저 사업시행자인 K-Water로부터 미래 지향적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구상을 듣고, 현장에 초청된 민간기업(10개 기업\*)과 함께 사업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 현대자동차(자율주행), KT(통신·네트워크), 포스코건설(스마트홈), 롯데정보통신(플랫폼), 한화 큐셀(태양광), 이큐브랩(쓰레기처리), 더웨이브톡(수질관리), PNU드론(드론), 프리폼연구소(3D 프린터), 컴퍼니비(엑셀러레이터)
- 또한 이 자리에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도 참가해, 성공적인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정부가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미래형 도시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백지상태의 부지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정부는 성공적인 시범도시 구축을 위해 ①시민·전문가·민간기업의 참여, ②혁신성장을 위한 자유로운 실험공간 조성, ③‘도시 플랫폼’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접목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참고 1: 국가 시범도시 차별화 전략

- 특히 국토부는 민간의 참여 없이는 시범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다양한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오늘 간담회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개최했다.

□ 김현미 장관은 민간기업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 “스마트시티는 과거 공공주도의 도시계획에서 탈피하여 민간이 주도적으로 도시를 조성·운영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라며, “과거 U-City 사업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특히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과감한 규제혁파를 더해, 어린아이가 모래사장(규제 샌드박스)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듯이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혁신 생태계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시범도시 조성 방향도 언급했다.
- 이어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도 병행하여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시범도시에 자유롭게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기회가 청년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또한 김 장관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국민 공모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역량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국토부는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해 규제 개선과 예산 지원을 병행하는 한편, 이번 민간기업 간담회와 같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끊임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사항은 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일반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 지난주 수요일에는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신(新)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혁신성장 진흥 구역\*\*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황희 의원 대표발의, 3.28)된 바 있다.

\* 드론·자율차 실증, 개인정보보호 특례, 공공발주 SW사업 참여기업 확대 등

\*\* 건폐율·용적률 등 입지규제 최소화를 통해 민간창업 지원 및 투자 촉진

- 한편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추진 현황 점검 및 간담회를 마치고 대통령께서도 추진 의지를 강조했던 ‘부산항(북항) 재개발’과 관련한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여러 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확인했다.

2018. 4. 5.

국토교통부 대변인

# 참고 1

# 국가 시범도시 차별화 인포그래픽스

세종·부산에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이렇게 다릅니다.



· 시민 전문가 민간기업이 함께 조성합니다.

<p>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시민의견수렴</p>	<p>혁신 마스터플래너(MP), 4차산업 혁명위원회 등 전문가 역량 집중</p>	<p>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민간기업의 참여</p>
----------------------------	--	---------------------------------

· 혁신성장을 위한 자유로운 실험공간을 제공합니다.

<p>국가시범도시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율주행차 운행</li> <li>드론 서비스</li> <li>5G, 빅데이터</li> </ul>	<p>규제 혁신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 기업투자 촉진</p>	<p>인큐베이팅 센터, 실증기회 제공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지원 + 청년일자리</p>	
--	--	---	--

· '도시 플랫폼'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이 접목됩니다.

- 분절된 도시데이터를 상호 연계한 데이터 허브모델 구현



\*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한 국가전략 R&D 추진

- 5G,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과, 교통·에너지·환경·복지 관련 생활밀착형 신기술 접목



\* 부처 협업을 통한 선도기술 접목 및 상용화 추진

· 입주후에도 혁신을 거듭하며, 혜택은 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p>Benefits 01 &gt;&gt;&gt; 도시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에게 시간을 돌려줍니다.</p>	<p>Benefits 02 &gt;&gt;&gt; 공유경제의 활성화와 도시자원의 절약으로 시민의 부담이 감소됩니다.</p>	<p>Benefits 03 &gt;&gt;&gt; 지능형 도시운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듭니다.</p>
--	--	---

## 참고 2

# 부산 에코델타시티 추진현황 및 계획 (K-Water)

### □ 국가 시범도시 추진방안

- ◆ 부산EDC는 기존의 사업 시행자 중심의 도시계획에서 탈피하여, 도시의 계획, 조성과정 및 운영까지 쏠과정을 차별화되게 조성 계획



### ○ 건설과정에서의 신기술 적용

- 건설과정부터 3D드론 측량을 이용한 현장관리로 스마트하게 조성하고 3D프린터 기술을 활용 시범도시내 다양한 형태의 공공시설물 설치



### ○ 주요 적용기술(안) \* 기본구상안 마련 과정에서 수정 가능

- (에너지) 도시화로 인해 과소비되는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수열, 연료전지,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에너지관리 최적화 계획



- (교통) 지능형교통체계 및 자율주행 무인셔틀을 도입하고 스마트 파킹을 통해 교통체증 및 주차난 없는 도시로 조성 계획



- (안전) 지능형 CCTV 등 차세대 방범 시스템 및 홍수, 지진 등 예측 대응 통합방재시스템을 도입, 안전하고 재해없는 도시로 조성 계획
- (생활·문화) 입주 또는 방문하는 시민들이 스마트 기술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스마트 전시관 및 스마트 쇼핑단지 등 조성 계획
- (물관리) 각 건물마다 설치하는 분산형 스마트 정수장, 스마트워터 시티 등 혁신적 물관리 기술을 도입, 정수기가 필요 없는 도시로 구축

#### □ 향후 추진일정

- 부산 EDC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래너(MP) 선정('18.4)
- 민간 비즈니스 모델 도입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18.4)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네이밍 대국민 공모('18.4)
- 부산 EDC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완료('18.6) 및 시행계획 수립('18.12)
- 실시설계 완료('19.6), 공사 착수('19.7~), 입주 개시('21.7~)